

생사 벗어난 완전한 깨달음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불교교리-열반

니르바나(nirvana, 涅槃)라는 말은 서구인들의 상상력을 한껏 자극하는 가장 매력적인 말이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부드러운 발음을 내는 용어의 깊은 뜻은 간과한 채, 너도 나도 현묘(玄妙)하면서도 이국적(異國的, exotic)인 이 말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럽과 미주(美洲)의 작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시인 루고네스(Leopolda Lugones)는 니르바나라는 말을 환각이나 혼돈이란 뜻과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꿈의 주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주의 운행은 꿈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꿈은 아니다. 니르바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유럽의 학자들은 처음에 니르바나의 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오해했다. 달만(P. Dahlman)은 니르바나를 '무신론과 허무주의(nihilism)의 심연'으로 불렀고, 부르노(Bumouf)는 절멸(絶滅)로 번역했다. 이런 현상에 영향을 받은 소련학자들은 니르바나가 무(無)의 완곡화법인줄 알았다. 또한 데이비드(Rhys David)는 생각하길, 니르바나는 이 땅에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인데,

까닭모를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그는 마침내 어렵듯한 니르바나에서



열반 즉, '니르바나'는 생사의 윤회를 벗어난 완전한 자유를 뜻한다. 서구 지식인들이 그것을 매우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했다. 사진은 만상이 어엿한 호의 세계를 그린 玄奘거사의 작품 '후 이어서 내려오나...'.

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불교 궁극의 도달처

깨어나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니르바나는 산스크리트어인데 팔리어로는 님바나(nibbana)로 발음되고 중국어로는 니판(ni-pan)으로 발음된다. 역시 니르바나라는 발음이 가장 듣기에 좋는데, 이는 어원적으로는 휴지(休息)나 소멸을 의미한다. 혹은 동사로 '사라지다'나 '종식되다'로 번역될 수 있다. 불교 경전에서는 흔히 의식(意識)을 뜻하거나 등불에 비유하는데 이 불꽃은 가름이 다하면 자연적으로 사그라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니르바나라는 말은 매우 적절한 용어로 보인다.

부처님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이 용어를 차용했고, 자이나교에서 역시 이 용어를 사용했다. 고대 인도의 서사시(마하바라타)에 니르바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종종 브라미니르바나(brahmanirvana 브라만(神)에 녹아들)로 변형되어 쓰이기도 한다. '신성(神聖) 속에 녹아들다'는 개념은 대양(大洋)에 합류하는 물 한방울이나 우주적 용광로 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불꽃 등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힌두전통 속의 인도인들은 개인의 영혼이 우주적 규모의 대양이나 화염과 합치(合致)될 수 있다고 믿는다. 흔히 니르바나는 브라만 신이나 행복이란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브라만 신이 녹아들다는 것은 개인이 곧 브라만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불교에서는 의식과 물질, 주제와 객체, 영혼과 신성을 부정한다. 우파니사드에는 우주의 순환이 신이 꾸는 꿈

“눈이 아픈 자에게 달이 둘로 보이더라도 원래 달이 하나인 것을 아는 것처럼 깨달은 사람은 감각의 세계가 환영이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의식의 소멸이 아니라 탐·진·치 삼독의 극복에 의하여 달성된다고 보았다. 피셸(Pischel)은 욕망의 소멸(Trishna)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죽을 이전에 니르바나에 도달한 성인은 이제 그의 행동의 업(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의 행위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로 인해 상이나 벌을 받지 않는데, 그는 이미 생사(生死)의 수레에서 벗어났고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리수 아래서 니르바나에 도달한 부처님은 40년 뒤 육체적 죽음을 통하여 파리니르바나(Parinirvana, 완전한 열반)를 이룬다. 논리적으로는 세계가 환영(幻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그때부터 우주가 사라져야 한다. 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본 사람은 죽어야 하듯이 끔찍한 계시를 받은 사람도 죽어야 한다. 배단타 경전에 적혀 있기를 마치 도자기가 완성되어도 도공의 회전 작업대는 계속 돌아가듯이 깨달음을 이룬 사람도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삶은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쌓았던 행위의 관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다. 따라서 깨달음 이후의 행위는 또 다른 결과를 불러오지 않는다. 꿈을 꾸는 자가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꿈이 진행되도록 두는 것처럼 지반 묵티(jvan-mukti, 땅위의 學者)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상카라는 이렇게 비유한다. “눈이 아픈 자에게 달이 2개로 보이더라도 그는 원래 달이 하나인 것을 아는 것처럼, 깨달은 사람은 감각의 세계를 지각하고 살지만 그것이 환영이라는 것을 안다” 달만은 인도의 고대 서사시를 인용한다. “성공과 실패, 생과 사, 육체적 쾌락과 고통... 나는 그런 허구(虛構, fiction)들의 친구도 적도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는 “인식의 문, 폭풍우 이는 바다속의 안전한 섬, 시련한 동굴, 피안(彼岸), 신성한 도시, 모든 병의 해독제, 욕망의 갈증을 가라앉히는 물, 열락의 음식, 생사윤회의 강(江)에 빠진 조난자들을 구제하는 대안(對岸)”이다.

《미란다왕문경》에서 말하기를, 니르바나는 비시간적이어서 감각적으로는 인식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러 생을 거친

뒤에야 겨우 그곳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니르바나는 사실상 그 생들을 선행하고 그 생들의 외부에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 위치를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불자들은 대개 그곳을 깨달은 사람이 편히 쉬는 곳이라고 형이상학적으로 인식하여 흔히 “열반에 든다”라고 표현한다.

오스트리아의 불교학자 에리히 프라우알너(Erich Frauwallner)는 부처님 당시 사용되던 니르바나의 뜻을 연구해서 이 말에 대한 서구인들의 이해를 향상시켰다. 우리들은 불꽃이 꺼지는 것을 불이 소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도인들은 불이 등을 켜기 전에도 존재했고, 등을 끈 뒤에도 지속한다고 생각한다. 불을 켜는 것은 불이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고, 끄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의식도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가 있을 때 우리는 의식을 느낀다. 죽을 때 육체는 사라지지만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니르바나를 묘사할 때 궁극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해탈을 통해 열반에 드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친 교설의 핵심이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신비를 풀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가 가르치고자 한 것은 속세(俗世) 즉 표피적인 세계로부터 해탈하는 방법이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겨냥하고 있다.

번역: 김홍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이재운 (소설가)



나와 불교의 관계는 작품에서부터 드러난다. 《사막을 건너는 사람은 발을 사랑해야 한다》는 순수한 감성과 젊은 열정을 가지고 대학 2학년 때 《화엄경》을 읽으며 두 손 짚고 소심하고, 《금강경》은 2년 전에 《금강경》에 도전해 보자는 욕심으로 쓴 두 권짜리 소설이다.

불교라는 이름을 드러내놓고 쓴 소설은 이렇게 두 편이지만 실상 내 소설은 모든 작품이 다 불교적 소재가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를 아는 일반인들이 나의 대표작이라고 지레짐작하는 《소설 토정비결》의 경우 보조인물이 승려이며, 그밖에 여러 스님이 등장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올해 초에 발표한 《갑부》의 경우 불교적 사유체계를 일반화시킨 소설로 불멸(不滅)을 주제로 한 개념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쯤되면 독자들은 내가 적어도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완참(頽頹)을 세워 놓고 주말마다 다니고 시시때

를 즐기지 않고 그럼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의 감로를 받고 간 절에서 환희를 만끽하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한판 출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과연 도안사에서는 이러한 나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었다. 법당에서 저 석굴암 부처님을 조성했을 옛 장인의 솜씨를 닮은 듯한 박찬수선생의 목불 조성 시연이 있었고, 번뇌를 걷어내고 쳐내고 두드려 부수는 듯한 승무가 있었고, 음률이라면 부처의 경계에 들어선 듯한 한 작곡가(정말 그 아름다운 이름을 왜 잊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의 자재로운 음악을 들을 때는 흥과 눈물이 같이 나왔다. 사물놀이패가 목탁소

“절에 가면 부처님 말씀 즐기고 와요”

불교적 사유체계 소설화가 나의 불심 표현

때로 다니리라고 상상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똥가.



리를 내면서 절규하는 듯이 토해내는 우리 소리에겐 가슴이 너무 울렁거리 잠든 달아기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장단을 맞추기도 했다.

그 뿐이었다. 스님께서는 지루할지 모를 설법도 그만두셨다. 그 정도도 수용할 줄 아는 스님 이시니 설법도 다르다면 그점이

서 절에 가 본 적도 없고, 누가 권해서 불교 책을 읽은 적도 없다. 내 발로 절에 갔었고, 내 손으로 책을 사서 읽었다. 그뿐 누구도 나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누구보다 독실한 불교신자이다. 나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 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물론 큰스님 한 분께서 “내가 불교를 버릴 수 있을 만큼 큰 진리를 만나려면 마땅히 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나 역시 나를 개종시킬 만한 큰 진리를 만나려면 몰라도, 아마도 나는 죽자마자 《금강경》이나 《지장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나는 불교학이런 편견이 많이 읽은 편에 속하는 불자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게 더 좋고, 즐거운 게 더 좋다. 내가 불교를 읽는 게 아니라 불교가 나를 포근하게 끌어안아 주었으면 좋겠다. 세상살이 피곤하고 힘든데 절에서라도 다독여주지 않으면 힘들어 어찌 살까. 그저 이런 마음으로, 불자 중의 작은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불교를 보고 싶고 거기에 놀고 싶다.

지난 부처님오신날에는 죽산에 있는 도안사에 갔는데,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다’ 왔다. 절에 가서 즐기는 게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절에 가서 부처님 말씀

자연 산삼

천종(자연산) 산삼을 채취하였습니다.

저희는 재배산삼이 난무하는 현 상황속에서도 천연 산삼만을 고집하는 심마니동우회 입니다. 그러던중 하늘의 은혜로 천연 산삼을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산삼으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닿는 분께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 장뇌 산삼도 공급해 드릴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심마니 동우회
전화 : 842-0094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자들의 사랑으로 이자임 결혼연구원이 크게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성원에 다소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전화비 명목의 적은 비용으로 96년 4월부터 행사기간을 정하였던바 6월 30일까지 행사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의 초여름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가슴으로 스미는 계절입니다. 지성을 겸비한 청춘 남녀의 근사하고 멋스러운 분들이 기다립니다.

- 구비서류
 - 초혼녀 주인증서, 등본, 졸업증명서, 사진(각1통)
 - 재혼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사진(각1통)
- 학력(남) : 전문대졸 · 대졸이상 (고졸은 특별상담)
- (여) : 고졸 · 대졸이상
- 연령: 남(23세~70세 까지)
- 초재혼 여(국졸, 중졸 안 35세 까지 특별 무료 상담 환영)
- 특수한분 정신장애, 육신장애를 갖고 어렵게 삶을 살아 가시는 분들께 특별한 결혼의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남 전문대졸 · 대졸이상(고졸특별 상담)
- 여 학력제한없음(특별 무료 상담 환영)
- ◆ 부모님 상담 환영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대우, 초,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분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회장 (법명: 法生心)
총합운라인구좌: 112-01-02121 예금주 이영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02)634-4910~2

해는 왜! 서쪽에서 떠서 꼭! 동쪽으로 지나

출판사 및 전국서점에서 판매

해는 왜! 꼭! 동쪽으로 떠서 꼭! 서쪽에서 지나

글쓴이 유용주

도서출판 무심

7,000원

서울시 송파구 송파1동 19-8 임진각빌딩 3층 전화 : (02)416-2324 팩스 : (02)417-7781